

#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의 방위문제와 조성시기

Direction and the Period of the Four-guardian Clay Statues  
in Songgwang Temple

임 영 애(Lim, Young-Ae)\*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元·明代 사천왕                     |
| 2.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의 현상과 방위문제 | 4.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의 양식적 특징과 조성시기 |
| 3. 경전 속 사천왕, 그리고 중국      | 5. 맺음말                       |

## < 초 록 >

진라남도 순천시 송광사 천왕문에는 높이가 4m에 달하는 塑造사천왕상이 있다. 2004년의 복장조사를 통해 각종 전적류, 인본다라니 등이 발견되었지만, 기대했던 복장발원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복장을 봉하는데 사용하였던 封緘木 위에 각 사천왕의 정확한 방위를 알려주는 명문 묵서명이 있음이 밝혀졌다. 그 결과 비파를 든 천왕이 북방 다문천이며, 幢이나 탑을 든 천왕이 서방 광목천왕임을 알 수 있으며, 조선시대 사천왕상의 정확한 명칭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글은 송광사 사천왕상의 본격적인 복장조사를 계기로 좀 더 분명해진 사천왕상의 방위문제와 대략의 조성 시기는 언제인가 밝혀보는 것이 그 목적이다. 실제로 사천왕상의 방위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논란이 없지 않았다. 이 글을 통해 지금까지 사찰마다 다르게 적고 있는 사천왕상 명칭의 혼란 문제를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반면 조성 시기는 방위문제에 비해 분명하지 않다. 불행하게도 복장조사를 통해 기대했던 복장발원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로써 정확한 조성시기의 단정은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북방 천왕이 들고 있는 비파 뒤쪽의 명문, 각종 복장 유물의 분석, 그리고 송광사 인근지역 사천왕상과 양식비교를 통해 1628년이 대략의 조성시기임을 알 수 있다.

요어 : 송광사, 「松廣寺誌」, 사천왕상, 소조상, 조선후기

\* 경주대학교 관광학부 교수(yayim@gyeongju.ac.kr)

접수일: 2005년 6월 7일 최초심사일: 2005년 6월 10일 심사완료일: 2005년 6월 20일

<ABSTRACT>

Four-feet high four-guardian clay statues stand in the gate of Songgwang Temple. Through the investigation done in 2004, various Buddhist scriptures were found in the chest of four-guardian clay statues. Though the records of building which we have expected were not come out, the letters indicating the accurate direction of the four-guardian statues were found on the wooden stopple. In result, we can know that the guardian statue holding mandolin is north guardian, and the guardian statue holding banner or stupa is western guardian. Besides, these records give us good sources for the accurate names of four-guardian statue in Chosun dynasty.

This paper would solve the problems about the direction and the building period of the four-guardian statues. Though there still remain a lot of controversy about these problems for which the way of writing in each temple varies, I could make the accurate direction of the four-guardian statues clear with the above materials. By the way, I made the comparisons between the styles of Songgwang Temple and its neighboring temples, and I could conclude that the period of building was 1628 A.D.

Key Word : Songgwang-sa, Records of Songgwangsa, four-guardian statues, clay sculpture, late Chosun Dynasty

## 1. 머리말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사 천왕문에는 높이가 4m에 달하는 塑造사천왕상이 있다.<sup>2)</sup> 이 사천왕상은 국내에 그 숫자가 많지 않은 흙으로 제작한 사천왕상 중 하나인데다가, 그 크기가 크고 상태가 온전하여 사천왕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복장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각종 송광사 관련 자료와 양식적 특징 등을 통해 대략의 조성시기와 관련사항을 추정하는 정도였다.

2004년 1월 7일부터 2월 2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복장조사를 통해 12종 14책의 판본 전적류와 인본다라니, 후령통 등이 발견되었다.<sup>3)</sup> 이 복장조사 결과 기대했던 복장발원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복장을 봉하는데 사용하였던 봉함목 위에 각 사천왕의 정확한 방위를 알려주는 명문 묵서명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들 봉함목의 묵서명은 조선시대 사천왕상의 정확한 명칭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글은 송광사 사천왕상의 본격적인 복장조사를 계기로 좀 더 분명해진 사천왕상의 방위문제와 대략의 조성 시기는 언제인가 밝혀보는 것이 그 목적이다. 실제로 사천왕상의 방위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논란이 없지 않았다. 이 글을 통해 지금까지 사찰마다 다르게 적고 있는 사천왕상 명칭의 혼란 문제를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반면 조성 시기는 방위문제에 비해 분명하지 않다. 불행하게도 복장조사를 통해 기대했던 복장발원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로써 정확한 조성시기의 단정은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북방 천왕이 들고 있는 비파 뒤쪽의 명문과 각종 복장 유물의 분석을 통해 대략의 조성시기와 개채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송광사 인근지역의 사천왕상과

2) 조선후기의 사천왕상에 관해서는 노명신, “조선후기 사천왕상에 대한 고찰,” 『미술사학연구』 202(1994. 6), 97-126 ; 노명신, “송광사 사천왕상에 대한 고찰,” 『강좌미술사』 13(1999), 91-102 이 있다.

3) 古鏡, 「송광사 천왕문·사천왕상」(송광사성보박물관, 2004), 미간행, 1-23 ; 강순애, “順天松廣寺 四天王像의 腹藏典籍考,” 『書誌學研究』 제27집(2004. 6), 27-61.

비슷한 양식을 지닌 사천왕상과의 비교 역시 조성시기 추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 2.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의 현상과 방위문제

송광사 천왕문을 들어서면 입구 우측에는 칼을 든 상이, 그리고 안쪽에는 비파를 든 상이 있다. 입구 좌측에는 용과 여의주를 쥔 상이, 안쪽에는 幢을 쥐고 있는 상이 있다.(도1-4) 이러한 형식을 지닌 4구의 사천왕상 존명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적지 않은 논란이 있어왔다.



<도 1> 순천 송광사  
북방 다문천

<도 2> 순천 송광사  
동방 지국천

<도 3> 순천 송광사  
남방 증장천

<도 4> 순천 송광사  
서방 광목천

통상적으로 통일신라, 고려시대에는 탑, 혹은 幢을 들고 있는 천왕이 북방 다문천이다. 이에 관해서는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대표적인 예로 석굴암의 사천왕상 역시 입구에 서서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 안쪽에 탑을 든 천왕이 있는데 북방 다문천이라고 부른다. 고려불화에서도 그림을 향해서 오른쪽 상단에 탑을 든 천왕이 있고 이 역시 북방 다문천이다.

문제의 시작은 조선시대 후기의 불화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유명한 1776년작 구례 천은사 아미타 후불탱에는 각 상마다에 존명이 뚜렷이 적혀 있



<도 5> 구례 천은사 아미  
타후불탱, 1776년



<도 6> 도 5의 서방천왕 부분  
타후불탱, 1776년

다.(도 5-6) 이 그림의 화면 오른쪽 상단에 탑을 든 천왕이 아닌 비파를 든 천왕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이 비파를 든 천왕을 북방 다문천이라고 적고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화면 오른쪽 상단에 배치되어 있었던 탑을 든 천왕은 화면 왼쪽 상단으로 옮겨졌고, 그 명칭은 서방 광목천이라고 부르고 있다. 즉 문제는 천은사 아미타 후불탱의 경우 통일신라, 고려시대와 달리 탑을 들고 있는 상을 북방 다문천이 아닌 서방 광목천으로 부르고 있으며, 지금까지 동방 지국천으로 불려왔던 비파를 든 상은 북방 다문천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다른 상들도 명칭이 함께 바뀌게 되었다.

결국 천은사 아미타 후불탱의 존명에 따르면 기왕의 동방→북방, 남방→동방, 서방→남방, 북방→서방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이다. 이를 천은사 아미타 후불탱을 그린 화가의 착오이거나 미숙의 결과로 보기도 하지만,<sup>4)</sup> 동일한 경우는 마곡사 괘불(1687), 장곡사 괘불(1773) 뿐만 아니라 같은 천은사의 삼일암 아미타 후불탱(1853)에도 있고, 19세기로 추정되는 대승사 대웅전의 후불목각탱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단순히 화가의 잘못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sup>5)</sup> 위의 예들 이외에도 적지 않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 1758년

4) 장충식, “한국불화 사천왕의 배치형식,” 『미술사학연구』 211(1996. 9), 29-53.

5) ‘엄격한 의례에 의하여 조성되는 불화의 존상명을 착오 또는 미숙이라고 평가하기보다 일단

작 홍익대 박물관 소장의 사천왕상 역시 비파를 든 상을 ‘북방 다문천’, 탑을 든 사천왕상을 ‘서방 광목천’이라고 밝히고 있고, 또 대영박물관 소장의 불화 (1796~1820)에서도 비파를 들고 있는 사천왕을 ‘北方護世多聞天王’으로, 용과 여의주를 쥐고 있는 사천왕을 ‘南方護世增長天王’으로 적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의 Asia Art Museum에 있는 사천왕도에도 幢을 들고 있는 천왕



<도 7> 서방 광목천왕, Asia Art Museum(San francisco)

을 ‘西方護世廣目天王’이라고 분명히 명기하고 있다.<sup>6)</sup>(도 7) 이 이외에도 1687년 마곡사괘불,<sup>7)</sup> 1773년 장곡사괘불 등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필자가 확인한 예만 이 정도이며,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예가 있을 것이다.

이로써 조선후기 불화에 나타난 사천왕상 중 각 천왕의 지물과 명칭에 관해서는 더 이상의 이견이 있을 수 없다.<sup>8)</sup>

그 결과 최소한 조선후기 불화에서는 천은사 아미타 후불탱의 존명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그렇다면 조선 후기의 사천왕상에서도 동일한 존명을 쫓

긍정적으로 존상명을 받아들이면서, 사천왕 배치형식에 대하여 새로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이기선, “조선후기 불화의 도상 배치형식에 관한 시론,” 『韓國의 佛敎』 11, 華嚴寺 本末寺篇(聖寶文化財研究所, 1998, pp.226-228).

6) *Hopes and Aspirations : Decorative Pating of Korea, Asia Art Museum of San Francisco*, 1988, Pl. 1(이 작품을 필자에게 소개해준 경주대 정병모 교수께 이 글을 빌어 감사함을 전한다.)

7) 김정희, “마곡사 괘불탱,” 『공주 마곡사 괘불탱』, 통도사박물관, 2004, p.11.

8) 그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은사 아미타후불탱을 위시한 사천왕 존명이 적혀있는 불화들을 화사의 착오로 보고 있다. ‘마땅히 비파를 들어야 할 동방지국천왕의 존명이 길정적으로 북방다문천왕으로 표기된 경우가 간혹있어 일반인 뿐 아니라 전문가들까지도 혼란에 빠지게 한다. 그 예로 천은사 후불탱화와 대영박물관이 소장한 조선 후기 『北方護世多聞天王』을 들 수 있는데 이 같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 때문에 종종 연구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다. … 이들 두 탱화의 존명 표기는 그 까닭은 알 수 없지만 잘못된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이대암, 『사천왕의 기원과 역사』, 『사천왕상』, 한길아트, 2005, p.229).

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에 관해 불화와 조각은 다른 계보 아래 다른 명칭을 사용하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고,<sup>9)</sup> 조선후기 조각 역시 비록 정확하게 존명이 밝혀진 경우는 없지만 불화의 경우와 동일하게 불려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sup>10)</sup> 필자 역시 불화와 조각은 동일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조선후기 불화와 조각이 서로 다른 계보를 가지고 조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불화와 사천왕상이 동일한 지물을 가진 사천왕들로 동일한 방향에 배치되어 있는데, 굳이 불화와 사천왕상의 존명을 다르게 불려야 할 이유가 없으며, 아울러 송광사 사천왕상의 경우만 해도 ‘重造’ 당시 14명의 화원이 참여하고 있어 불화와 조각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음은 자명하다.<sup>11)</sup>

이러한 지점에서 조각 역시 불화와 동일한 존명으로 쓰였음을 분명하게 입증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예가 바로 순천 송광사의 사천왕상이다.<sup>12)</sup> 다행스럽게도 2004년 1월 고경스님의 복장조사 당시 복장 封緘木 墨<sup>13)</sup>에 비파를 든 상을 ‘북방’이라고 분명히 명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도 8-9)<sup>13)</sup> 이들 4개의 봉함

9)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그림과 조각의 도상이 각 계열 간에 각기 다른 전통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노명신, 「앞글」, 1994, p.111) ; 노명신, 「앞글」, 1999, pp.91-102 ; 노명신, “조선후기 사천왕도의 고찰,” 「강좌 미술사」 7(1995. 12), 81-100.

10) 문명대, “新羅四天王像의 研究-韓國塔浮彫像의 研究 2,” 「佛敎美術」 5(1980), 東國大博物館, 4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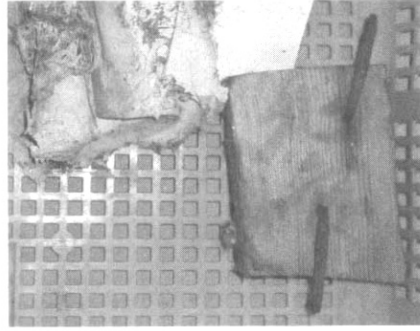
11) 松廣寺 四天王 琵琶 銘文(1976年 重修 당시 기왕의 명문 위에 새로 덧칠하여 銘文을 기록하였다) ‘四天王創造 及 重修記 創造 大明崇禎元年戊辰月日敬造四天王記 證明 熙玉 持殿 印清 高員 應圓 高利 釋潤 法海 戒雄 釋森 懷潤 天翼 離幻 天然 性悅 三忍 信懷 法端 司果 洪有知 仁均 小兒 李愛生 化主 法欽 別座 圓一 供養 大悟 枚修 懷信 壽命 勝默(古鏡, 「송광사 천왕문·사천왕상」, 송광사성보박물관, 2004, 미간행, p.9) ; 동일한 내용은 「松廣寺史庫」 p.641 (建物部 片史) ; 「松廣寺史料」 pp.63-64(四天王 創造 及 重修記) ; 「松廣寺史庫」 p.630(四天王 與 丹旆第四重修記) ; 「松廣寺史庫」 p.635(四天王 第四重修記) ; 「松廣寺誌」 pp.173-264.

12) 현재 남겨져 있는 조선후기의 사천왕상 중 유일하게 존명이 적혀 있는 예가 바로 송광사의 사천왕상이어서 그 의의는 더욱 크다. 1515년작 보림사 사천왕상의 경우 복장조사 당시 이미 많은 손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10책에 달하는 전적류가 발견된 바 있다. 그러나 사천왕상의 각 존명을 밝혀주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迦迦山 寶林寺精密地表調査」, 順天大學校博物館 地方文化資料叢書 第五, 순천대학교 박물관, 가지산 보림사, 1995, 40-46).

13) 20세기에 쓰여진 송광사의 동중 기록에는 비파를 든 상을 동방으로, 탑을 든 상을 북방으로



<도 8> 북방 다문천  
봉함목 '북방' 목서명



<도 9> 북방 다문천 봉함목과 북장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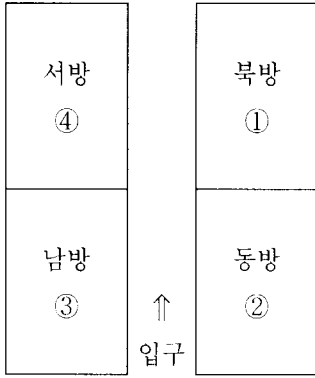
목은 북장품의 봉안 당시의 목서가 분명하며, 각 봉함목이 부정형일 뿐만 아니라 서로 크기가 달라 이후 서로 섞였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 또 소조상은 제작 기법의 특성상 목재결구가 기본이며, 그 위에 새끼줄을 단단히 감고 그 위에 혹은 두텁게 입힌다.<sup>14)</sup> 따라서 소조상의 뼈대에 해당하는 목재결구와 봉함목은 후대에 교체가 불가능하여 조성 당시의 것일 수 밖에 없다.

이로써 조선시대 후기에는 불화뿐만 아니라 조각에서도 동일한 방위개념을 사용하고 있었음이 분명히 입증되었다. 즉 조선후기의 사천왕상들은 천왕문 입구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측에는 북방과 동방이(안쪽부터 ①과 ②), 좌측에는 서방과 남방이(안쪽부터 ④와 ③) 배치되어 있다.(표1, 2) 다시 말하면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불화나 조각을 막론하고 사천왕상은 항상 동일한 방위로 배치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선후기 불화뿐만 아니라 조각의 경우도 동일하게 비파를 든 상이 북방 다문천이며, 탑을 든 상이 서방 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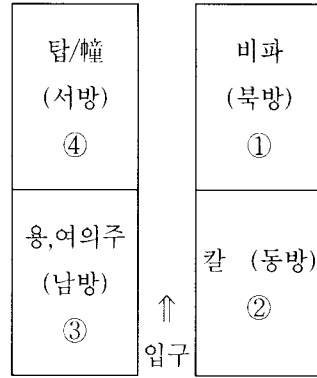
기록하고 있어 혼란의 소지가 있지만, 이는 20세기의 기록이며, 북장의 봉함목에 각 상의 존명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 이에 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曹溪山松廣寺史庫」, 「四天王像重修改彩記(1926)」, 「東方護世乾達婆主提頭賴吒持國天王抱琴奏樂南方護世鳩槃荼主毘留勒義增長天王執劍驅邪(或奉塔退兵)西方護世爲大龍主毘樓博義廣日天王嚙龍弄珠北方護世大藥義主毘沙門多聞天王建旗領眾」.

14) 송광사 사천왕상의 제작기법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것. 한경순,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 제작기술에 관한 연구,” 「춘계서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5, 4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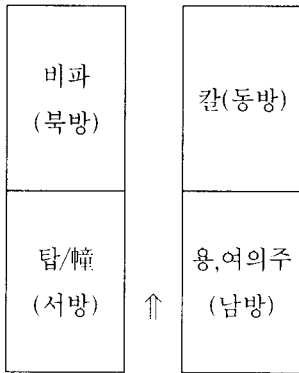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의 방위문제와 조성시기



<표 1> 조선 후기 불화와 사천왕상의 기본 방위배치



<표 2> 조선 후기 불화와 사천왕상의 방위와 지물



<표 3> 홍천 수타사 사천왕상의 배치도

목천입은 송광사 사천왕상에서 분명히 밝혀졌다.

이처럼 송광사 사천왕상의 봉함목 목서를 통해 정확한 존명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지만, 존명은 홍천 수타사의 사천왕상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물론 홍천 수타사의 경우 북서명이나 명문이 남겨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 배치가 조선후기의 통상적인 예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즉 봉황문의 입구 쪽 우측에는 용과 여의주를 쥔 상이, 안쪽에는 칼을 쥔 상이 배치되어 있다. 봉황문의 좌측에는 입구 쪽으로 당을 쥐고 있는 상이, 안쪽에는 비파를 쥐고 있는

상이 있다.(표3) 이 경우 어떻게 보아도 탑을 든 상은 북방 다문천일 수 없다. 이는 북쪽에 위치해야 할 북방 다문천이 동북방이 아닌 서북방으로 45도 각도 틀어서 위치한 경우로 현재 남겨진 사천왕상 중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홍천 수타사의 예를 제외하고는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불화나 조각의 사천왕상들의 방위는 줄곧 (표1)과 같이 모두 동일하다. 그 결과

조선시대 후기 사천왕상은 불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방 지국천은 칼을, 남방 증장천은 용과 여의주를, 서방 광목천은 幢, 탑을, 북방 다문천은 비파를 들었음이 확실하게 되었다.

그런데 남은 문제는 왜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는 탑이나 幢을 든 천왕이 입구 쪽에서 바라보았을 때 향해서 우측(본존의 좌측)의 안쪽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좌측 안쪽으로 위치를 바꾸었으며, 명칭도 서방 광목천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 이유를 티베트 라마교에서는 서방천왕이 탑과 용을 함께 쥐고 있었던 것에서 찾기도 하지만,<sup>15)</sup>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는다. 티베트 라마교의 사천왕상 중 서방 광목천왕이 탑을 든 예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표5 참조)

힌두의 여덟 방위신의 배치를 보면, 북방의 쿠베라(Kuvera)는 동북방에, 서방의 바루나(Varuna)는 서북방에 위치한다. 즉 표1의 사천왕상 배치와 마찬가지로 본존 때문에 정북방향에 북방천왕을 두는 것을 피해야 할 경우,<sup>16)</sup> 북방천왕은 동북방이든지 서북방이든지로 45도 각도씩 비껴서 두어야 하는데, 이때 시계방향, 즉 태양이 도는 방향으로 45도 각도 트는 동북방을 선호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줄곧 (표1)과 같은 방위로 사천왕상을 배치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불교에서의 右邊 道과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본다.<sup>17)</sup> 대표적인 밀교경전 중 하나인 『不空罽索神變眞言經』에는 각 천왕이 배치되는 방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동방)提頭賴吒天王 左手把槩右手揚掌半加趺坐 東南面葉上 (남방)毘嚧訶迦天王 左手執槩右手揚掌半加趺坐 西南面葉上 (서방)毘嚧博叉天王眉間一白 左手持槩右手掌獨股金剛杵半加趺坐 西北面葉上 (북방)多聞天王 左手執槩右手把獨

15) '특히 원이나 청을 통해 들어온 라마교의 영향이 상당히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라마교의 지물은 보통 동 비파, 남 도검, 서 불탑, 북 幢幡 등인데 광목천이 탑을 든 라마교적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문명대, 「앞 글」, 45).

16) 힌두교에서도 역시 정북방향에 브라마(Brahma)가 위치하며, 이를 피해 동서남북의 방위신이 배치된다.

17) 中森義宗, 衛藤駿, 永井信一, 「美術における右と左」, 中央大學出版部(東京, 1992), 225-231 ; 이기선, 「앞 글」, 22-228,

股金剛杵半加趺坐 東北面葉上: (밑줄 및 괄호 필자)<sup>18)</sup>

즉 동방 천왕은 동남 면에, 남방 천왕은 서남 면에, 서방 천왕은 서북 면에, 북방 천왕은 동북 면에 위치한다고 적고 있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태양이 도는 방향으로 45도씩 틀어서 배치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단 시대마다 사천왕의 지물이 바뀐 이유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 3. 경전 속 사천왕, 그리고 중국 元·明代 사천왕

사천왕의 지물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경전은 적지 않다. 「普曜經」(西晉 竺法護 譯), 「方廣大莊嚴經」(唐 地婆訶羅奉 譯)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唐 義淨 譯), 「陀羅尼集經」(唐 阿地瞿多 譯)이며, 그 이외에도 「不空罽索神變眞言經」(唐 菩提流志 譯), 「藥師琉璃光王七佛本願功德經念誦儀軌供養法」(元 沙羅巴 譯) 등이 있다. 이들 경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천왕의 지물은 경전마다 일정치 않다.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파승사」에서는 ‘사천왕은 하나는 利刀를 잡고, 하나는 罽索을 잡고, 하나는 창을 잡고, 하나는 활과 화살을 잡는다’<sup>19)</sup>라고 하고 있어 특정지물과 특정 방위의 천왕을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 이는 「방광대장엄경」에서도 마찬가지이다.<sup>20)</sup> 또 「보요경」에서는 비사문천에 관해서 ‘가지가

18) 「不空罽索神變眞言經」(唐 菩提流志 譯), 卷第十二(「大正藏」 Vol. 20, No. 1092).

19) 「釋提桓因即遣四天王神營衛其母 而此四神 一執利刀 一執罽索 一執於戟 一執弓箭」(「大正藏」 Vol. 24, No. 1450,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 卷第二 唐 義淨 譯).

20) 「東方天王及乾闥婆主 南方天王及鳩槃荼主 西方天王及大龍主 北方天王及夜叉主 其身悉被金剛鐵甲 或執弓刀 或持矛戟 或復導前 或復隨後」(「大正藏」 Vol. 3, No. 187 「方廣大莊嚴經」 卷第六(唐 地婆訶羅奉 譯) 出家品); 「東方提頭賴吒天王 領乾闥婆主從東而來 將無量百千乾闥婆衆 奏諸伎樂鼓舞絃歌 … 南方毘婁勒叉天王 領鳩槃荼主從南而來 將無量百千鳩槃荼衆 各執寶瓶盛滿香水 … 西方毘婁博叉天王 領諸龍神主從西而來 將無量百千諸大龍衆 各各手持諸雜珍寶眞珠瓔珞種種花香 復散香雲花雲及諸寶雲 亦動微妙輕靡香風 … 北方毘沙門天王 領夜叉主從北而來 將無量百千夜叉衆 手持寶珠其光照曜過於世間百千燈燭; 身著鎧甲 手執弓刀矛戟干戈輪槊叉弩」(「大正藏」 Vol. 3, No. 187 「方廣大莊嚴經」 卷第六(唐 地婆訶羅奉 譯) 出家品 第十五).

지의 장엄하는 도구를 입고, 병기를 가지고서'라고 적고 있으며<sup>21)</sup> 우리가 흔히 아는 탑에 관한 언급은 없다. 같은 「보요경」에는 동방과 남방이 모두 갑옷에 투구를 쓰고 풍악을 울린다고 했고, 북방천왕은 손에 구슬을 가지고 갑옷에 투구를 쓰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sup>22)</sup> 고려시대 1275년 작(충렬왕1년) 사경으로도 남겨져 있는 「不空罽索神變眞言經」(唐 菩提流志 譯)에도 사천왕 지물에 관해 동방과 남방은 왼손에 창을, 서방과 북방은 왼손에는 창, 오른손에는 금강저를 들고 있다고 적고 있다.<sup>23)</sup>

경전 중에 북방천왕이 불탑을 든다는 언급은 「다라니집경」 뿐이다. 이 때 다른 천왕들의 지물은 칼, 창, 새끼줄 등이다.<sup>24)</sup> 동방천왕이 비파를 든다는 기록은 「藥師琉璃光王七佛本願功德經念誦儀軌供養法」(元 沙囉巴 譯)에 나오는데, 이 때도 동방과 남방천왕을 제외하고는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지물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sup>25)</sup>

- 21) '爾時毘沙門天王 著種種具莊 取兵仗騎乘 與無央數百千諸鬼神俱圍繞 及諸天王往與諸阿須倫共戰鬥'(「大正藏」Vol. 3, No. 186 「普曜經」卷第五 戰鬪品 第十).
- 22) '提頭賴吒 與無數億百千捷齊和 稽首被甲冑 從東方來 住東方界稽首菩薩 鼓衆伎樂在於虛空 毘留勒叉天王 與無數億百千鳩刀 皆被鎧甲 從南方來住南方界稽首菩薩 鼓衆伎樂在於虛空 毘留羅叉天王 與無數億百千龍俱 各垂寶環從西方來住西方界稽首菩薩 北方毘沙門天王 與無數億百千闍叉 手執焰光明珠威耀晃晃 身被甲冑 從北方來住北方界 稽首菩薩 天帝釋梵與無數億百千諸天'(「大正藏」Vol. 3, No. 186 「普曜經」卷第四(西晉 竺法護 譯) 出家品 第十二).
- 23) '提頭賴吒天王 左手把槩右手揚掌半加趺坐 東南面葉上 度底使者并及眷屬 南面葉上 毘嚕訶迦天王 左手執槩右手揚掌半加趺坐 西南面葉上 功德天地天神半加趺坐 西面葉上 毘嚕博叉天王 眉間一目 左手持槩右手掌獨股金剛杵半加趺坐 西北面葉上 辯才天俱摩羅天王半加趺坐 北面葉上 多聞天王 左手執槩右手把獨股金剛杵半加趺坐 東北面葉上'(「大正藏」Vol. 24, No. 1092, 「不空罽索神變眞言經」, 卷第十二).
- 24) '四天王像法 提頭賴吒天王像法 其像身長量一肘作 身著種種天衣 嚴飾極合精妙 與身相稱 左手申臂垂下把刀 右手屈臂 向前仰手 掌中著寶 寶上出光 毘嚕訶迦天王像法 其像大小衣服准前 左手亦向前天王法 申臂把刀 右手執槩 槩根著地 毘嚕博叉天王像法 其像大小衣服准前 左手向前 唯執槩異 其右手前而把赤索 毘沙門天王像法 其像大小衣服准前 左手向前 執槩拄地 右手屈肘擎於佛塔'(「大正藏」Vol. 18, No. 901 「陀羅尼集經」).
- 25) '東方持國天大王 其身白色持琵琶 … 南方增長天大王 其身青色執寶劍 … 西方廣目天大王 其身紅色執罽索 … 北方多聞天大王 其身綠色執寶叉'(「大正藏」Vol. 19, No. 926 「藥師琉璃光王七佛本願功德經念誦儀軌供養法」元 沙囉巴 譯); '東門中持國天王 白色 二手持琵琶 南門中增長天王 藍色持劍 西門中廣目天王 紅色持蛇索 北門中多聞天王 黃色持寶鼠 以上四天王 頭戴寶冠 身著天衣 兩足並立 如是等相'(「大正藏」Vol. 19, No. 928 「修藥師儀軌布壇法」).

따라서 최소한 조선후기에는 동방 = 비파, 북방 = 불탑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며, 생각했던 것처럼 조선후기 사천왕의 지물이라는 것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당시 화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일정한 방위개념이었다.<sup>26)</sup> 북방천왕을 북방에 둘 수 없을 경우 동북방을 택하여 태양이 도는 방향으로 45도 각도 틀어 배치하는 방법을 시대를 막론하고 선호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단 통일신라, 고려후기 탑을 든 천왕이 북방천왕으로 고정되었던 것은 통일신라시대에는 석굴암을 위시한 조각들에 미친 「다라니집경」의 영향,<sup>27)</sup> 또 고려시대에는 탑을 든 북방 비사문천신앙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sup>28)</sup> 이후 탑을 든 천왕은 무조건 북방천왕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겨났고, 더불어 탑을 든 천왕을 북방으로 고정시킨 후 나머지 천왕을 방위에 따라 이름붙인 것이 동방 = 비파로 자리매김되어 버린 결과가 아닌가 한다. 분명한 사실은 고려시대까지는 탑을 든 천왕이 북방천왕이었지만, 늦어도 조선시대 초기부터 19세기까지는 탑을 든 천왕은 서방 광목천왕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고려이전의 고정관념, 즉 ‘탑을 든 천왕은 북방천왕’이라는 생각은 20세기 이후 습관처럼 사용되면서 지금과 같은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사천왕과 동일한 방위배치와 지물은 중국 명대의 사찰벽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흥미롭다. 북경의 法海寺에도 중앙의 본존을 중심으로 향해서 오른쪽에는 비파를 든 천왕과 칼을 든 천왕이, 왼쪽에는 幢, 탑을 든 천왕과 용, 여의주를 든 천왕이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배치는 앞서도 언급한 조선시대 불화의 일반적인 사천왕 배치, 그리고 천왕문의 사천왕 배치와 동일하다. 이 법해사의 사천왕상은 이처럼 조선시대 사천왕과 동일한 배치와 동일한 지물을 지니지만 존명은 적혀있지 않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같은 명대의 河北省 石家

26) 승탑의 경우에도 각 방위에 맞게 사천왕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들 사천왕상들 역시 일정하게 북방 다문천을 동북방향에 두고 있다.(姜二慧, “羅木麗初 僧塔 塔身 神將像 研究,” (석사학위 청구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2001), 44-45.

27) 문명대, 「토함산석굴」, 한·연, 252-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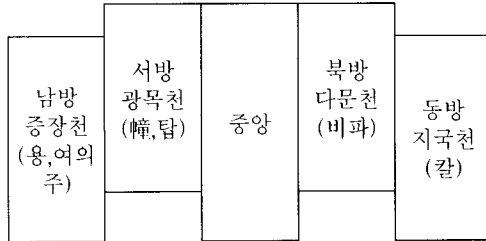
28) 심영신, “고려시대 비사문천상 연구,” 「미술사연구」 제16호(2002), 55-80.



<도 10> 광목증장천왕, 河北省 石家莊市 毘盧寺 後殿 北壁 三界諸神圖, 明



<도 11> 도10의 서방광목천왕



<표 4> 毘盧寺 後殿 北壁 三界諸神圖, 明

莊市 毘盧寺 後殿 北壁에 그려져 있는 三界諸神圖에는 존명이 적혀있다. 사천왕의 배치와 지물 역시 모두 동일하다. 존명은 각각의 천왕에 적혀있지 않고, 2구씩 한꺼번에 적고 있다. 향해서 오른쪽의 2구에는 '지국다문천왕'의 존명이 (도10,11), 향해서 왼쪽의 2구에는 '광목증장천왕'의 존명이 적혀있다.(표4) 이로써 명대에도 칼을 권 천왕은 동방 지국천, 비파를 든 천왕을 북방 다문천,幢,탑을 든 천왕을 서방 광목천, 그리고 용,여의주를 든 천왕을 남방 증장천으로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사천왕에서 보이는 배치나 지물은 중국 명대 사천왕 배치와 관련있음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이러한 배치와 지물은 물론 조선후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조선전

기의 사경 중에서도 동일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1448년 안평대군, 효령대군 발원의 묘법연화경 판화(강태영 소장, 보물 766호)와 1459년 광평대군부인 신씨 발원본(일본 西來寺 소장)에 등장하는 사천왕상의 배치와 지물 역시 조선 후기 사천왕상과 동일한 배치, 지물로 표현되어 있어 이미 조선시대 전기부터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29)</sup>

	북	동	남	서
티베트 라마교 사천왕상(유형1)	幢, 쥐	비파	칼	탑, 용
티베트 라마교 사천왕상(유형2)	幢, 쥐	비파	칼	용, 여의주
원 居庸關 웅화궁	幢, 쥐	비파	칼	용, 여의주

<표 5> 티베트 라마교와 원의 사천왕

그런데 한 가지 특기할만한 점은 원대 사천왕의 배치는 명대 사천왕 배치와 또 다르다는 점이다. 원대 사천왕상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천왕상으로는 유명한 居庸關 웅화궁의 예가 있다. 거용관의 부조 사천왕상에도 역시 존명이 새겨져 있다. 4개의 부조에는 각각 비파, 용과 여의주, 칼, 幢과 쥐를 들고 있는 천왕이 있다. 비파를 들고 있는 천왕 부조의 향해서 좌측상단에는 위패형 명문과 안에 ‘동방지국천왕’이라는 명호를 적고 있다. 또 오른손에 幢을 쥐고 있는 천왕에는 ‘북방 다문천왕’이라고 적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통일신라나 고려의 사천왕상과 원의 사천왕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통일, 고려의 사천왕상은 북방 다문천이 탑을 들고 있으며, 나머지 천왕들은 대체로 칼을 쥐고 있어 특징적인 지물을 보이지 않는다.

이로써 남은 문제는 원대 사천왕의 배치와 지물형식이 왜 명대 사천왕에 와서는 바뀌었는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원대에는 幢과 쥐[寶鼠]를 쥐고 있던 천왕을 북방 천왕이라고 불렀는데, 명대에 와서는 왜 서방 천왕이라고 부르게

29) 박도화, 「朝鮮 前半期 佛經版畫의 研究」(東國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8)를 참조할 것. 조선전기 사경의 사천왕상에 관한 소중한 자료를 소개해준 인천시 문화재감정관실의 박도화선생님께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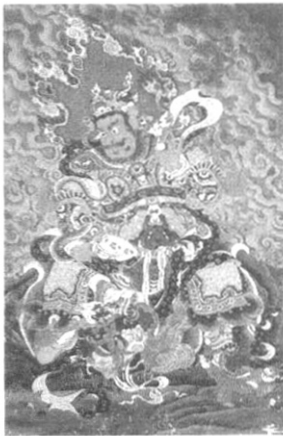
<도 12> 티베트 라마교 북방  
다문천(유형1)



<도 13> 티베트 라마교 서방  
광목천(유형1)



<도 14> 티베트 라마교  
북방 다문천(유형2)



<도 15> 티베트 라마교  
서방 광목천(유형2)

되었는가이다. 티베트 라마교의 사천왕상 중 서방 광목천왕이 탑을 들고 있는 예가 있어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sup>30)</sup>(도12,13) 같은 티베트 라마교 사천왕상 중에는 서방 천왕이 탑을 들지 않는 경우도 많아 단정짓기는 곤란하다.<sup>31)</sup>(도14,15)

30) 문명대, 「앞 글」, p.45.

31) 중국 宋, 遼, 金, 元의 사찰벽화 중 적지 않은 사천왕상이 있다. 이에 관한 면밀한 검토도 앞으로 남은 숙제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원에서 명으로의 사천왕 배치와 지물 변화의 원인을 함께 알아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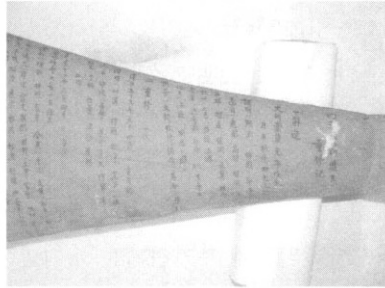
#### 4.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의 양식적 특징과 조성시기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은 정확한 제작연대를 알 수 없다. 믿을만한 기록은 「松廣寺誌」의 1628(인조6)년에 ‘重造’하였다는 기록과,<sup>32)</sup> 북방 다문천의 비파명문에서 보이는 ‘創造’했다는 기록이다.<sup>33)</sup>(도16,17) 이 때 ‘重造’했다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새로 만든 것인가. 그리고 비파명문의 ‘創造’라는 단어는 과연 믿을만한 기록인가.

첫째, 우선 송광사 사천왕상은 나무로 만든 틀 위에 흙을 덧붙여 만든 塑造像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바로 조선후기 특히 인조(1624~1649)대에 조성된 거의 모든 사천왕상의 재료가 흙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1630년을 전후한 시



<도 16> 송광사 북방 다문천의 비파 뒤쪽 명문부분



<도 17> 도 16의 세부

기에 특히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sup>34)</sup> 실제로 임진왜란 이후

32) 비파명문에서 언급된 증명 熙玉은 바로 부휴의 제자인 待價대사이며, 「松廣寺誌」에 ‘인조6년에 송광사 사천왕소상 重造의 증명위에 행공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松廣寺誌」 p.173).

33) 주10 참조.

34) 17세기 현존 예 중 대략의 연대추정이 가능한 사천왕상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제작시기	시기	재질	크기	북	동	남	서
보림사	전남 장흥	1515년	중종10	나무	373cm	비파	칼	칼, 창	幢, 탑
직지사	경북 금릉	16세기 후반	선조년간	소조	443cm	비파	칼	용, 여의주	幢, 탑
법주사	충북 보은	1624	인조2	소조	600cm	비파	칼	용, 여의주	幢, 탑
송광사	전남 순천	1628이전	인조6	소조	403cm	비파	칼	용, 여의주	幢, 쥐

17세기 후반까지는 사천왕상의 재료로 주로 흙을 사용하다가, 17세기말부터 18세기로 접어들면 나무로 바뀌기 시작한다.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일관성을 보이고 있어, 제작연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 대략의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단지 사천왕상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전반기 특히 인조대 불교조각의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하다.<sup>35)</sup> 이러한 현상은 흙이라는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제성과 비교적 크기가 큰 상도 손쉽게 빚어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둘째, 1628년에 ‘重修’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重造’라는 쓰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때 ‘重造’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물론 약간의 개보수를 부풀려 ‘중조’라고 표현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그 뒤로 여러 차례에 걸친 개보수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중수개채’라고 적고 있어, ‘重造’는 1628년 당시 거의 새로 만들다시피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琴板記에는 ‘創造 大明崇禎元年戊辰月日敬造四天王記’라고 적혀 있는데,<sup>36)</sup> 여기서 ‘重造’도 아닌 ‘創造’, ‘敬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도17) 물론 금판기가 1976년 6차 중수개채 당시 이미 쓰여 있던 비파명문 위에 개채하고 새로 쓴 것이어서 그 내용의 신뢰성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새로운 내용을 글 말미에 추가하기는 하지만 내용을 바꾸어 적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1628년 당시 사천왕의 단순한 보수에 그친 것이었다면 비파명문에서 ‘創造’, ‘敬造’라는 표현을 썼을 리가 없고, 아울러 그 밖의 문헌에서도 ‘重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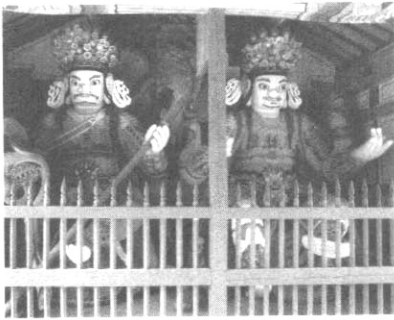
화엄사	전남 구례	1632	인조10	소조	373cm	비파	칼	용,여의주	幢,귀
송광사	전북 완주	1649	인조27	소조	425cm	비파	칼	용,여의주	幢,탑
수타사	강원도 홍천	1676	숙종2	소조	295cm	비파	칼	용,여의주	幢,귀
선운사	전북 고창	1680	숙종6	소조	326cm	비파	칼	용,여의주	幢,탑
적전사	경북 청도	1690	숙종16	나무	380cm	비파	칼	용,여의주	幢,탑
용문사	경남 김해	1702	숙종28	나무	294cm	비파	칼	용,여의주	幢,귀
쌍계사	경남 하동	1704	숙종30	나무	411cm	비파	칼	용,여의주	幢,탑

35) 심주완, “임진왜란 이후의 대형소조불상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 233·234(2002. 6), 95-100.

36) 주10 참조.

고 적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셋째는 사천왕상의 양식적 특징이다. 송광사의 사천왕상은 인근 전남지역의 사천왕상들과 같은 양식을 지닌다. 현재 조성시기를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는 17세기 전·중반기의 사천왕상은 대략 6곳에 달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중 전남 지역이 2곳, 전북이 2곳, 충북,강원이 각 1곳씩이다. 이 밖에도 조성연대가 분명치 않지만 대략 이 시기로 추정되는 전남 고흥 능가사, 전남 영광 불갑사 등까지 포함하면 전남지역이 압도적으로 많다. 전북지역까지 포함한다면 전라남북도 지역의 사천왕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조선후기의 사천왕상은 17세기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제작지역은 호남지역이 압도적이다. 그 중 대표적인 사천왕상이 바로 이곳 송광사의 사천왕상인 것이다.<sup>37)</sup>



<도 18> 보림사 사천왕상 중 서방 광목천과 남방 증장천(오른쪽부터)

송광사의 사천왕상은 1515년작 전남 장흥의 보림사 사천왕상의 양식을 기본으로 하였지만,<sup>38)</sup>(도18) 1632년작 구례 화엄사의 사천왕상과 1649년작 승주 송광사의 사천왕상과 친연성이 짙다.<sup>39)</sup>(도19,20) 이들의 가장 큰 공통 특징은 용과 여의주를 쥐고 있는 남방 증장천이 고개를 틀어 바깥쪽을 쳐다 보고 있는 점이다.

37) 이러한 경향은 단지 사천왕상에서 뿐만 아니라 불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흥미롭다. 실제로 대형소조불상 역시 17세기 전반에 집중될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충청남도과 전라남북도 지역에서 특히 유행하였다. 이는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충청, 호남지역이 무사하여 그동안 義僧軍이 조직화될 수 있었고, 조직화된 의승군은 이후 대규모 재건불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심주완, 앞 글, p.133).

38) 「迦智山 寶林寺精密地衣調査」, 順天大學校博物館 地方文化資料叢書 第五, 순천대학교 박물관, 가지산 보림사, 1995, 40-46.

39) 승주 송광사의 사천왕상은 탑을 든 서방광목천왕의 왼쪽 보관 끝 뒷면에 '順治己丑年七月一卅 金山畫圓主造像 崔仁'의 목기가 있어 1649년에 완성되었음을 알려준다.(「禪宗大伽藍 完州 松廣寺」, 松廣寺, 1997, p.23).



<도 19> 구례 화엄사 사천왕상 중 남방 증장천



<도 20> 완주 송광사 사천왕상 중 서방 광목천과 남방 증장천(오른쪽부터)

또 정사각형에 가까운 네모난 얼굴에 짧고 뭉툭한 커다란 코 역시 특징적이다. 특히 인근 구례 화엄사의 사천왕상과의 관계는 각별한데, 지리적으로도 가장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불과 몇 년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는다. 커다란 머리, 깊이 들어 앉아 안정감있는 坐勢, 굽고 뭉툭한 손 등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음을 알려준다. 또 서방 광목천이 담은 들지 않고 幢 만을 오른손에 쥐고 왼손에는 쥐를 쥐고 있는 점 역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비슷한 시기 1653년작 화엄사 괘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송광사 사천왕상은 17세기에 특히 유행하던 대형의 조각이며, 재료 역시 17세기 전반기에 특히 유행하던 흙이라는 짐, 아울러 ‘重造’ ‘創造’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그 양식적 특징이 17세기 전반에 조성된 인근 지역의 사천왕상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1628년을 현존 사천왕상의 제작시기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송광사 사천왕상이 소조이기 때문에 1628년 새롭게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있던 나무뼈대(복장포함)를 그대로 두고 조성했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1628년 새롭게 사천왕상을 ‘중조’하면서 기왕의 복장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사천왕상만 조성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 설령 원래의 나무뼈대를 그대로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새롭

게 불사를 행하고 복장발원문 혹은 중수문을 안치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또 『松廣寺誌』 중 1597(丁酉, 宣祖 30)에 ‘丁酉再亂 毀像’<sup>40)</sup>이라는 기록과 松廣寺 四天王門 重創 上梁文(1612) 중의 ‘曹溪山 松廣寺 四天王殿 丁酉倭火燒亡 壬子年分重創 上梁文’ 기록에서 ‘毀像’ ‘燒亡’ 등의 표현 역시 송광사 사천왕상이 1628년경 거의 새로 조성하였을 가능성을 높여준다.<sup>41)</sup>

## 5. 맺음말

사천왕신앙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후 사천왕상의 방위는 달라진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북방 사천왕상은 항상 시계방향, 즉 태양이 도는 방향으로 45도 각도 틀어 동북방향에 배치하였다. 그 결과 시대를 막론하고 표 1,2에서와 같은 방위로 사천왕상을 배치하였다. 문제는 지물이다. 고려시대까지는 북방 다문천이 탑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천왕의 지물은 특별히 정해진 것 없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때 탑을 든 천왕은 북방 천왕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겨나게 된다. 그런데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탑을 든 천왕의 위치가 바뀌게 된다. 즉 입구에서 서서 바라보았을 때, 탑을 든 천왕이 향해서 오른쪽 안쪽(표1,2의 ①)이 아니라 향해서 왼쪽의 안쪽(표1,2의 ④)에 배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조선시대부터는 북방 천왕이 지금까지와 같은 동북방이 아닌 서북방에 위치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아울러 통일, 고려시대의 사천왕 방위배치와 조선시대 방위배치는 달라진 것으로 오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세기이후의 사람들은 ‘탑=북방 천왕’이라는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40) 『松廣寺誌』 p.264.

41) 이러한 대략의 제작시기 추정엔 전적류의 분석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물론 다소 시기를 올려볼 수 있는 전적류들이 있기는 하지만, 후인관의 경우 마멸이 심하여 빨라야 16세기경에 인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은 송광사 사천왕상의 조성시기 추정에 도움을 준다(강순애, 앞 글, p.43).

하지만 실제로는 표1,2와 같은 사천왕의 방위배치는 우리나라에 사천왕신앙이 도입된 이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음이 이번 송광사 사천왕상의 봉함목을 통해 분명히 밝혀졌다. 달라진 것은 방위가 아니라 사천왕의 지물이다. 다시 말하면 통일, 고려시대에는 탑이나 幢을 든 천왕이 북방 다문천이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서서는 탑이나 幢을 든 천왕이 서방 광목천왕으로 명칭이 바뀐 것이다. 고려시대 사천왕상에서 조선시대 사천왕상으로의 이와 같은 지물의 변화는 중국 원에서 명으로의 변화양상과 동일하다. 따라서 분명한 사실은 조선시대에 들어서 사천왕의 지물이 바뀐 원인은 명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도 남은 문제는 원에서 명으로의 변화 원인이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지금까지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명칭과 관련하여 오류와 혼란이 적지 않게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의 봉함목 목서명을 통해 정확한 방위가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각 사찰마다 각양각색으로 이름을 달고 있는 사천왕상의 명칭이 잘 정리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sup>42)</sup>

### <참고문헌>

-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大正藏』 Vol. 24, No. 1450)  
「方廣大莊嚴經」(唐 地婆訶羅奉 譯) 卷第六 出家品(『大正藏』 Vol. 3, No. 187)  
「普曜經」(『大正藏』 Vol. 3, No. 186)  
「不空罽索神變眞言經」(『大正藏』 Vol. 20, No. 1092)  
「修樂師儀軌布壇法」(『大正藏』 Vol. 19, No. 928)  
「藥師琉璃光王七佛本願功德經念誦儀軌供養法」(『大正藏』 Vol. 19, No. 926)  
「陀羅尼集經」(『大正藏』 Vol. 18, No. 901)  
「迦智山 寶林寺精密地表調査」, 順天大學校博物館 地方文化資料叢書 第五, 순천대학교 박물관, 가지산 보림사, 1995

42) 이 글이 있기까지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송광사성보박물관 관장 고경스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 「禪宗大伽藍 定州 松廣寺」, 松廣寺, 1997
- 「松廣寺史庫」
- 「松廣寺史料」
- 「松廣寺誌」
- 姜 慧.“羅木麗初 僧塔 塔身 神將像 研究.” 석사학위청구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2001.
- 강순애.“順天 松廣寺 四天王像의 腹藏典籍考.” 「書誌學研究」 제27집(2004. 6)
- 占 鏡.“송광사 천왕문·사천왕상”. 송광사성보박물관, 2004. 미간행.
- 김정희.“마곡사 괘불탱.” 「공주 마곡사 괘불탱」. 통도사박물관, 2004.
- 노명신.“송광사 사천왕상에 대한 고찰.” 「강좌미술사」 13(1999).
- 노명신.“조선후기 사천왕도의 고찰.” 「강좌 미술사」 7(1995. 12).
- 노명신.“조선후기 사천왕상에 대한 고찰.” 「미술사학연구」 202(1994. 6)
- 문명대.“新羅四天王像의 研究-韓國塔浮彫像의 研究 2.” 「佛敎美術」 5(1980).
- 박도화.“朝鮮 前半期 佛經版畫의 研究.” 박사학위 청구논문. 東國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1998.
- 심영신.“고려시대 비사문천상 연구.” 「미술사연구」 제16호(2002).
- 심주완.“임진왜란 이후의 대형소조불상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 233·234(2002. 6).
- 이기선.“조선후기 불화의 도상 배치형식에 관한 시론.” 「韓國의 佛畫」 11, 華嚴寺 本末寺篇 聖寶文化財研究所, 1998.
- 이대암.“사천왕의 기원과 역사”, 「사천왕상」, 한길아트, 2005.
- 장충식.“한국불화 사천왕의 배치형식.” 「미술사학연구」 211(1996.9).
- 한경순.“순천 송광사 사천왕상 제작기술에 관한 연구.” 「춘계서지학회 학술발표 논집」 2005.
- 中森義宗, 衛藤駿, 永井信.“美術における右と左”(東京:中央大學出版部, 1992). Hopes and Aspirations, *Decorative Pating of Korea*, Asia Art Museum of San Francisco, 1988.